

對山 姜潛의 삶과 詩

— 檢書官 및 外職 시절의 시를 중심으로 —

金 玲 竹*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V. 시로 쓴 삶의 궤적 |
| II. 姜潛의 가계와 行歷 | V. 남는 문제 |
| III. 『對山集』의 구성 | |

<국문 초록>

對山 姜潛(1807-1858, 字는 進汝, 號는 對山)은 19세기의 문인으로 그의 증조부는 詩·書·畫 三絶로 잘 알려진 표암 강세황(1713-1791)이다. 강진 역시 증조부의 문예적 기질을 그대로 이어 받은 뛰어난 문인 지식인이다. 가문의 학적 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의 대산은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대 별열 관료들은 소위 三檢書로 일컬어지던 이덕무·박제가·유득공을 이을 만한 인물로 對山 姜潛을 꼽았다.

하지만 詩人 姜潛과 그의 시들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대산 강진의 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근거 있게 접근하기 위해 『대산집』 및 필사본 『대산시초』를 교감하고 대조하였다. 또한, 『내각일력』과 실록 등 관찬자료를 참조하여 그의 행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wenxue@hanmail.net

그의 한시를 분석, 검토하면서 연행과 검서관 임용, 홍양 감목관과 안협 현감 시절의 시들에 주목했다. 이 시기들의 시는, 검서관으로서의 得意한 표현, 학예적 분위기에 대한 자부심과 신분적 한계에서 오는 현실적 자괴감 등이 표리를 이룬다. 아울러, 일상의 소소함을 담담하게 필치로 그려내기도 한다.

연구가 일천하여, 그의 삶의 궤적을 살피느라 작품 개개의 정치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일, 동시대 문인들의 작품과 함께 견주어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 때문에 본고는 대신 강진의 시작품을 연구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여기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무게를 실었음을 밝힌다.

【주제어】 대신 강진, 검서관, 연행, 『대산집』, 표암 강세황

I. 들어가며

對山 姜潛(1807-1858, 字는 進汝¹⁾, 號는 對山)은 19세기의 문인으로 그의 증조부는 詩·書·畫 三絶로 잘 알려진 표암 강세황(1713-1791)이다. 강진 역시 증조부의 문예적 기질을 그대로 이어 받은 뛰어난 문인 지식인이다. 가문의 학적 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의 대산은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대 별열 관료들은 소위 三檢書로 일컬어지던 이덕무·박제가·유득공을 이을 만한 인물로 對山 姜潛을 꼽았다. 그의 저작이 다소 소략하고 그의 생애를 고구할 만한 傳이나 行狀이 없던 것도 연구의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의 오류도 더러 있다.²⁾ 그는 풍양 조씨 일문을 비롯한 당대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존경각 소장 『對山集』에는 그의 자가 ‘進如’로 되어 있다.

2) 검서관 임용시기(한국역사인물정보시스템에는 1842년으로 되어있어 『內閣日曆』이나 『日省錄』에 기록된 1837년과 큰 차이가 있음)가 그러하며, 또한 1833년 燕行使 참여 사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세도의 詩友로써 이들 사이에 詩名이 높았음에도, 書畫 외에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다.

본고는 대산 강진의 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 우선, 『대산집』 구성을 살피고, 연도순으로 편간된 『대산집』 內 800여 편의 시³⁾를 통해 그의 行歷을 좇아 대략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했다. 그의 시를 좇아서 삶의 여정을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기는 했지만 시 자체만으로 추적하는 데는 여전히 난점이 존재한다. 강진의 문학작품에 관한 학계의 선행연구가 없는 것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대산집』의 편간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고,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하고 임팩트가 될 만한 사안들이 요소요소에 있었다. 이는 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주었는데, 연행체험, 검서관의 수석 발탁, 감목관이라는 실질적 宦路가 그것이다. 활동 지역이 달라지고, 직임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험들은 그의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준다.

이에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사항들, 즉 연행과 검서관 임용, 홍양 감목관 시절, 안협 현감 시절의 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姜潛의 가계와 行歷⁴⁾

대산은 규장각 검서관 출신이다. 선대에 인종, 효종, 현종, 숙종 4대에

3) 『對山集』(존경각 소장본)에 수록된 시(序跋文 제외)는 총 601題 881首이다. 또 다른 필사본 『小紅葉樓未定草』에 수록된 시는 87題 106首이다. 이들을 대조해보면 『小紅葉樓未定草』에 실린 시들 대부분 이 『對山集』에 수록되어 있으나 『小紅葉樓未定草』에만 실린 시들도 상당수 있다. 『對山集』의 연작 시 가운데 각각 다른 제목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시작품 수량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 행장이나 제문, 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생애를 고증한 것이 아니므로 ‘行歷’이라 한 것이다.

걸쳐 영의정을 지낸 雪峰 姜栢年과 고조부인 白閣 姜覲, 豹菴 姜世晃까지 걸출한 문인 학자를 배출한 소북계 집안임에도 그의 관직은 검서관에 그쳤다. 물론 외직으로 興陽 監牧官과 安峽 縣監을 역임하기는 했지만 선대에서 누린 영달에는 미치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는 그가 표암의 庶孫이었던 이유가 크다.⁵⁾ 표암은 姜儉 姜侗, 姜儻 姜儻, 姜信 5형제를 두었고 三當齋 강흔은 대산의 조부가 된다. 강흔은 姜彝天 姜彝文, 姜彝大 3형제를 두었으며 대산의 아버지는 姜彝大이다.⁶⁾ 백각 강현이 노론 4대신을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금산으로 유배를 가고 1728년 이인좌의 난에 연루된 표암의 맏형 姜世胤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집안은 몰락의 기로에 들어선다. 하지만 대산의 조부 강흔⁷⁾과 아버지 강이대⁸⁾가 관직에 나아가면서 후대의 벼슬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강진 또한 검서관 및 외직들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아들 姜龜秀, 姜鴻秀 역시 입격의 기록이 있다. 姜龜秀는 사옹원 직장, 의금부 도사, 사옹원 관관, 典牲廳 관관 등 중5품의 관직을 역임했다. 그럼에도, 대산의 삶을 고구할 만한 온전한 행장이나 제문 등이 없어 그의 行歷은 남아 있는 시문이나 교유 인물들의 증시를 통해 추정해야 한다.

-
- 5) 대산 강진이 표암 강세황의 서손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만한 자료는 『司馬榜目』이 거의 유일하다. 『逸士遺事』와 『槿域書畫徵』 등에는 표암의 증손자로서 詩·書·畫에 능했다라는 상당히 소략한 소개뿐이다. 필자가 참조한 『晋州姜氏竹窓公后雪峯公白閣公世譜』(晋州姜氏竹窓公后雪峯白閣公派譜編纂委員會)와 같은 현대 족보에서는 嫡庶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단, 『사마방목』에 강진의 아버지인 姜彝大가 姜彝天의 庶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강진 자신이 庶子는 아닐지라도, 아버지로 인해 庶族 출신이 된다.
- 6) 이상 표암가의 가계에 관해서는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 7) 『일성록』, <영조 50년 6월 25일조>, “行召對於尊賢閣 輔德 李晉圭 司書 姜侗 翊衛 黃仁廉” 외 4건 참조.
- 8) 『일성록』, <순조>, “敎曰濬源殿修改時本道觀察使 南履翼 …… 竝陞敍各務都檢察前郎廳 姜彝大…” 외 『내각일력』, <정조 10년 8월 27일조> 참조.

검서관 대산의 삶은 그의 詩集 『對山集』의 서문 가운데 대략적으로 드러나 있다. 社臯 朴承輝(1802-?)는 서문에서 말하길

예전에 정종대왕께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검서관을 두고자 文學之士 중에 불우한 자를 선발하여 채우셨다. 당시 雅亭 李德懋, 楚亭 朴齊家, 洽齋 柳得恭이 있어 맨 먼저 발탁하였으니 시문으로 나라에서 크게 떨쳐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三檢書’라 칭했다. 이후 6, 7년간 규장각에 선발된 이가 매우 많아 불만 했다. 그러나 저 삼검서와 비해보면 실로 상유(上游)와 십가(十駕)의 탄식이 있었으니, 재능 있는 선비들의 오르내림이 이와 같았다. 오직 강대산 검서만이 쟁쟁하게 두각을 나타내어 거의 선배들의 자취를 이을 수 있었다. 대개 강씨의 문학에는 대대로 연원이 있다. 雪峰[姜栢年]과 白閣[姜覲]은 예원에 이름을 날려 詞壇의 맹주였고 豹菴公[姜世冕]에 이르러서는 그가 詩·書·畫 삼절로서 세상에 명성이 알려졌다. 대산은 빛을 품고 좋은 혈통을 타고 났으며 지혜가 뛰어나 글과 글씨, 그림이 표암공을 매우 닮았다. 약관의 나이에 석애 조충경공[趙萬永]의 지우를 입었는데 공은 그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훌륭한 儒者로서 대우해주셨다. 석애공의 아우 윤석 조문충공[趙寅永]은 사람의 종장으로, 시문에 있어 자랑함이 적었으나, 유독 대산에게만은 격려하고 그냥 두지 않으셨다. 그의 시를 평하기를 “비단을 수놓은 수건, 雲霞의 쾌육, 봉새의 울음과 난새의 소리 같아 인간의 입에서 나온 기운이 아니다”라 하였다. 대산은 또한 희곡 이상공[李止淵]을 따라 연경에 반당으로 갔는데 날로 시야가 넓어지고 시 또한 진전하게 되었다. 드디어는 秘閣에 들어가고 홍양의 감목관이 되었으며, 安朔의 부절을 차게 되었다. 이는 문인이 세상을 잘 만난 것이라 이를 수 있겠다. 중년에 석애공과 윤석공이 세상을 떠나자 대산 또한 낙망하고 실의에 빠져 南廓에 우거하며 문을 닫고 지내며 영락했다. 병 또한 생겨서 짧은 수명에 액운이 겹치니 이는 곧 문인이 세상을 잘못만난 것이다.9)

9) 姜潛, 『對山集』, 乾, 卷1, 朴承輝 「序」, “昔我正宗朝設奎章閣, 肇置檢書官, 選文學之士坎壈不遇者而充之. 時則有李德懋雅亭朴齊家楚亭, 柳得恭洽齋, 首膺是選, 以詩文大噪於國中, 世所稱三檢書. 是已嗣後六七年, 選入閣者, 彬彬多可觀, 而視夫三檢書, 實有上游十駕之歎, 才彥陞降有如是矣. 惟姜對山檢書翹然出頭角, 庶幾接武乎前人, 蓋姜氏文學代有淵源. 雪峰白閣鸚聲藝苑, 主盟詞壇, 泊豹菴公以三絕名於世, 對山胚光血禪, 穎悟絕人, 文與書與畫, 酷肖豹翁, 弱冠受知於石厓趙忠敬公, 石厓奇其才, 待以席上之珍, 石厓季弟雲石文忠公,

박승휘는 서문에서 대산 강진을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과 견줄만한 검서관으로 평가했다. 침계 윤정현 역시 서문을 써준 바 있다. 그는 세칭 삼검서라 칭해지는 이덕무·유득공·박제가가 檢書體를 이루었는데, 60년 이후 대산 강진이 비로소 그들의 뒤를 이었다고 칭송했다.¹⁰⁾ 社臯朴承輝는 대산과 상당히 두터운 교분을 지니고 있었다. 대산의 젊은 시절부터 만년까지 곁에서 보아온 그는 누구보다 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對山集』¹¹⁾은 詩鈔이며¹²⁾ 행장이나 제문, 傳 등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의 시와 교유한 인물의 詩文 등을 통해 行歷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심암 조두순·침계 윤정현·청풍 김학성·분계 홍순목·사고 박승휘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¹³⁾ 이 가운데 박승휘의 서문은 대산의 젊은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삶과 교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여 行狀을 대신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서문을 참조해보면 그는 석애 조만영, 윤석 조인영 등 풍양 조씨 일문과 희곡 이지연 등의 당대 벌열들의 지우를 입었다. 대산과 忘形之交를 맺었던 秋齋 趙秀三(1762-1849)은 대산을 두고 “재주와 기예 내각에 있었고/ 재상들 사이에서 중유했는지[才藝圖書府, 遨遊宰相間]”¹⁴⁾라 한 바 있

以詞林宗匠，於詩文少詡可，獨於對山，獎與之不置，評其詩曰，錦帔霞珮鳳管鸞笙殆非煙火人口氣…對山又隨希谷李相公聘於燕，日益廣而詩亦益進，遂入秘閣視興陽之牧，佩安朔之符，斯可謂文人之遇於世也歟。中年石厓雲石捐館，對山亦躋蹙鬱悒僑居南郭，閉門落病又乘之，阨于短造，是則文人之不遇也”

- 10) 姜滄, 『對山集』, 乾, 卷1, 尹定鉉 「序」, “正宗戊戌 奎章閣置檢書官青莊李懋, 古芸柳惠風. 貞蕤朴次修, 首應詩選三家之詩, 皆卓然成家, 世號爲檢書體, 後六十年, 姜對山進如官檢書以攻詩, 始屬三家之絕…”
- 11)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것은 존경각 소장본 『대산집』이며, 『소흥엽루미정초』(수경실소장본 필사본)과의 대조를 곁했다.
- 12) 『對山集』의 裏題는 ‘對山詩鈔’로 되어 있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 13) 이들은 강진이 知遇를 입었던 풍양 조씨 일문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거나 詩社 동인, 대산이 검서관 직을 수행하면서 따르던 이들이다.
- 14) 趙秀三, 『秋齋詩鈔』, 「夢對山」.

다. 추재 역시 풍양 조씨 일문의 知遇를 입어 중인의 신분임에도 노령의 나이에 과거에 입격하는 운을 누리기도 했다. 풍양 조씨 일문이 일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셈이다. “중년에 석애 조만영과 운석 조인영이 세상을 떠나자 대산이 영락하여 문을 닫고 지냈다는” 박승휘의 언급은 이를 증명한다. 『대산집』 곳곳에서 석애·운석과 차운한 시가 빈출한다. 이들이 詩會를 함께 하며 여행할 때 대산이 동행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希谷 李止淵과 海谷 李紀淵 형제 역시 대산을 아꼈는데¹⁵⁾, 희곡과 해곡이 석애·운석과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이에 연유한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대산은 1833년 正使였던 희곡을 따라 入燕의 기회를 얻게 된다. 젊은 시절 대산의 삶은 대부분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안협 현감 재직 중에 석애 조만영, 조인영은 세상을 떠났고, 그가 현감직에서 물러난 1853년부터는 지인들과 詩會에서 酬唱나 하며 조용하고 쓸쓸한 삶을 살았다. 또한 1857년 서울 교외의 靑坡로 집을 옮기고 이듬해 생을 마친다. 박승휘의 서문에 ‘南郭’으로 옮겼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Ⅲ. 『對山集』의 구성

『對山集』은 1868년(高宗 5년)에 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대산집』 坤, 권4 조영하의 跋文에 나와 있다.

대산은 시로써 우리 증조부 운석 선생께 지우를 입었다. 선생께서 매번 칭송하며 말하기를 “속세의 口氣가 없다”라 하시고 우선 발탁하여 秘閣[규장각]에 들어셨는데 이때 대산의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 운석 선생의 문집이 완성되었는데, (대산의) 시집 또한 이어서 완성되니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산의 長子 龜秀가 내게 와서 한마디를 구하는데 내가 문제가 없다는

15) 姜潛, 『對山集』 乾, 卷2, 「歷拜海谷李公古今島謫居臨發」 註에 “希谷 李公은 매번 나를 ‘姜少年’이라 부르셨다[希谷李公 每呼余以姜少年]”라 되어 있다.

말로써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써서 엮정에 부쳤다. 무진년 10월 하순 풍양 조영하가 쓰다.¹⁶⁾

대산의 맏아들인 姜龜秀는 운석 조인영의 손자 조영하와 조성하에게 발문을 부탁했다. 이에 선대의 우의로 발문을 써주었는데, 마침 雲石의 문집¹⁷⁾ 또한 간행되었던 시점이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對山集』 및 有關資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명	구성	형태 및 소장처	刊記
『對山集』	4권 2책(乾,坤)	奎史字本 (존경각소장본)	高宗5(1868)刊 小紅葉樓編
-裏題: 對山詩鈔 -序文: 조두순, 윤정현, 홍순목, 김학성, 박승휘 -跋文: 조영하, 조성하 -박승휘의 서문에 이어 冬郎 韓致元の 「對山之子連下姜龜秀見過而因有感舊之懷共賦長律」이 필사되어 있음			
『姜對山詩鈔』	4권 2책(一,二)	奎史字本 (국립중앙도서관본)	高宗5(1868)刊 小紅葉樓編
-裏題: 對山詩鈔 -序文: 조두순, 윤정현, 홍순목, 김학성, 박승휘 -跋文: 조영하, 조성하			
『小紅葉樓未定草』 ¹⁸⁾	1책	필사본 (수경실소장본)	未詳
-裏題: 小紅葉樓未定草 -대부분 『대산집』에 수록된 시와 중복이 되지만 제목이 다르거나, 『대산집』, 『강대산시초』에 수록되지 않은 시도 있음. -연대순이 아닌 無順으로 되어 있음.			

16) 姜滄, 『對山集』 坤, 卷4, 趙寧夏 「跋」, “對山以詩嘗見知於我王考雲石先生, 先生每極稱曰, 殆無煙火口氣. 首選入秘閣, 於時對山之名益著. 今雲石集成之年, 詩集又鍾而成之, 豈偶然乎哉. 對山之胤龜秀要余一言, 余不以無文辭, 書此而歸之舊誼也. 戊辰十月下澣, 豐陽 趙寧夏 跋”

17) 조인영의 『雲石遺稿』 20권 10책도 1868년에 간행되었다.

서명	구성	형태 및 소장처	刊記
姜潛簡札	1張	草書簡札 (장서각소장본)	未詳
『華人魚雁集』	13張	草書簡札 (국립중앙도서관본)	憲宗哲宗年間 (1835 - 1863, 추정) -姜潛 輯
-청조문인 朱善旂, 李文瀚, 慶霖 등의 간찰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존경각 소장본 『對山集』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은 表題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연도순의 編制와 序跋의 구성까지 차이가 없다. 『華人魚雁集』은 1833년 대산이 연행에 임했을 때 받은 청조 문인들의 手札을 모아 놓은 것이다.

존경각 소장본 『대산집』은 4권 2책(乾, 坤)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수	저작시기	작품수	주요 내용
(乾)권1	1831(25세) ~1842(36세)	184首, 序5篇	-悼亡詩(1832년) -연행시 45수(1833년) -검서관 入直에 관한 시 -금강산 유람시 수록(1842)년
-趙斗淳, 尹定鉉, 金學性, 洪淳穆, 朴承輝의 서문 -冬郎 韓致元의 시 1수 필사되어 있음			
(乾)권2	1842(37세) ~1849(43세)	134首	-홍양 감목관 시절의 시 다수 -전남일대 유람시 -강원도 일대 유람시(1842, 1843) -안협 현감 시절의 시 일부
-죽지사체 작품 수록 「帶方竹枝詞」 5수, 「阿珍竹枝詞」 5수			

18) 『小紅葉樓未定草』(수경실본)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김영진 교수님께서 자료 열람의 기회를 제공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厚意에 감사드린다.

권수	저작시기	작품수	주요 내용
(坤)권3	1850(44세) ~1852(46세)	86首	-안협 현감 시절의 시 일부 (임소 주변지역 유람시 『峽中八景』 등) -경기도 남양주 일대 유람시
-六言詩 夏日六言雜絶			
(坤)권4	1853(47세) ~1858(52세)	101首, 跋2篇	-解官 이후 수창시 -淸坡로

시의 내용은 검서관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 풍양 조씨 일문과의 유람, 興陽 감목관과 安峽 현감을 지내면서 任所 주변을 지나며 쓴 시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시사 동인들과의 수창시도 다수 있다. 지역의 명승지를 소재로 쓴 시들이 많아 흔히 강진의 시 대부분을 단순한 遊覽詩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가 지방관의 공무 수행이나 검서직의 差備官 역을 행하면서 여정 중에 저작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운석 조인영은 그의 시에 대해 평하길 ‘煙火口氣가 없다’ 하였고, 金學性 역시 대산이 선대의 영광을 이어받아 재예가 뛰어나고 서화에 있어서는 표암을 매우 닮았다고 했다. 특히, 그의 시를 평함에 있어서는 “詩詞에 특징이 있으며 결코 부화한 시어를 쓰지 않고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와 독창적으로 했으며 眞際와 遠韻을 숭상하였다…”라 하였다.¹⁹⁾

『대산집』에 실린 그의 시는 대체로 전범에 구애 받지 않는다. 故事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화려한 수식을 일삼지도 않는다. 자신의 시세계를 표방할 만한 詩論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을 소박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일찍이 그의 증조부인 표암 강세황은 시란 외면적 격식을 떠나 내면적인 것에 충실하여 자신

19) 姜滄, 『對山集』 乾, 박승휘 「序」에는 석애와 운석의 詩評을 빌어 “…錦帔霞珮鳳管鸞笙殆非煙火人口氣…”라 하였다. 또한 김학성은 「서」에서 “…對山薰襲前光, 才藝不群, 書畫酷類豹翁, 長於詩詞, 絕不作浮聲漫造, 必以心造獨創, 眞際遠韻爲尙…”라 하였다.

의 감정과 진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²⁰⁾ 대산 역시 이러한 표암의 詩風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듯하다.

IV. 시로 쓴 삶의 궤적

연대순으로 편간된 『대산집』을 토대로 하여 대산의 삶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20대의 연행체험, 검서관직의 발탁과 홍양 감목관 시절, 안협 현감 시절과 만년은 그의 시적 소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본고에서는 각 시기에 저작된 주요 詩作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엿보고자 한다.

1. 20대의 연행 체험

대산의 20대와 30대 후반까지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燕行과 검서관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산집』 4권 2책은 1831년(25세)의 저작부터 수록되어 있다. 그가 연행에 임하기 전인 1832년²¹⁾ 아내²²⁾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는 「도망」 3수를 지어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해 절절한 심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제3수에 “낙엽 진 나무 빈산에 밤사이 서리내려/ 열은 어둠에 쇠잔한 달 더욱 황량하구나/ 그대가 만든 겨울 옷 여전히 입고 있는데/ 그대 추운가 말하려니 애 끊

20) 표암의 시에 대해서는 정은진, 「표암 강세황 한시의 형식과 표현」(『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과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21) 『對山集』 乾, 坤에 수록된 시들은 시대 순으로 편간한 것인데 「悼亡」은 1832년 저작인 「平蕪」와 183년 저작 「新昌縣樓月色」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 연행에 임했던 해는 1833년이므로 1832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22) 『晉州姜氏竹窓公后雪峯公白閣公世譜』(晉州姜氏竹窓公后雪峯白閣公派譜編纂委員會)를 참조해보면, 세상을 떠난 부인은 광주 李氏이며, 이후 밀양 朴氏와 재혼했음을 알 수 있다.

어지는듯[落木空山夜有霜, 淡鴉殘月轉荒涼, 寒衣尙著君裁剪, 欲說君寒更斷腸]²³⁾이라 했다. 당시 대산은 25세의 젊은 나이였으며 시를 통해 보건데 혼인을 한지 10년이 채 되지 못해 喪妻의 슬픔을 안게 된다. 悼亡詩들이 예의 그렇듯 부인을 향한 그의 輓詩 또한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다. 늦가을, 산의 황량함과 차가운 가을비는 葬地를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밤사이 서리까지 내렸으니 寒氣는 몸을 엄습했을 것이다. 부인이 손수 지어준 두꺼운 옷을 입고 “그대도 춥겠지”라 말하고 싶은 애끓는 심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상처의 슬픔을 뒤로 하고 1년 뒤에, 그의 삶에 있어서 큰 外遊의 기회가 오니, 燕行이 바로 그것이다. 『대산집』에 실린 박승희의 서문과 연행시들을 통해 燕行을 가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데, 그는 希谷 李止淵²⁴⁾의 반당으로 수행했다. 대산은 풍양 조씨 일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希谷 李止淵, 海谷 李紀淵 형제와도 從遊했다. 그 인연으로 燕行에 참여한 것이다. 1833년 7월 進香使行의 三使는 正使 李止淵, 副使 朴晦壽, 書狀官은 李竣祐로 구성되었다.

『對山集』에 실린 연행시들을 살핀 결과 그의 연행 경험은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권1에 수록되어 있는 燕行詩는 총45수이다. 동시대 문인들의 燕行詩文에 비해 多作을 남긴 편은 아니며, 별도로 구성된 연행록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록된 시의 내용은 연행노정 중에 경유하는 名所들과 여정의 心懷를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²⁵⁾

23) 姜潛, 『對山集』 卷1, 「悼亡」 3수중 제3수.

24) 희곡 이지연 역시 연행시를 남겼다. 『희곡유고』 上(권2)에는 1833년 동지사행과 관련한 연행시가 실려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반당으로 수행한 대산과의 수창시는 보이지 않는다. 희곡 이지연의 『희곡유고』 上, 下(8권 4책)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 역시 이를 참조하였다. 임기중 편, 『연행록속집』에 수록된 「희곡연행시」 또한 『희곡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연행시와 동일하다.

25) 연행시에 묘사된 지역은 坡州, 臨湍, 金陵, 瑞興, 鳳山, 平壤, 箕城, 練光亭, 龍灣, 鳳凰城, 乾者浦, 黃家莊, 分水嶺, 聶水河, 靑石嶺, 太子河, 遼陽, 周流河, 廣寧, 桃花洞, 連山, 姜女廟, 山海關, 永平府, 薊州, 通州, 皇城, 煤山, 文

다음은 대산이 회곡 이지연을 수행하여 입연하며 쓴 시이다.

隋希谷李尙書入燕 회곡 이상서를 따라 입연하다

弱歲期遐舉	젊은 나이에 훌쩍 떠나길 기약하니
中原騁遠遊	중원으로 원유를 가게 되었네
出門多白日	문 나서니 날은 참으로 밝고
騎馬又清秋	말 타니 또한 맑은 가을이구나
逸翮棲無定	멀리 나는 새 깃들 곳 정하지 않고
孤雲去不留	외로운 구름은 떠나서 머무르지 않으니
沙堤故園路	모래 둑과 고향 길을
那忍更回頭	어찌 차마 다시 돌아보리

20대의 첫 遠遊에 설레는 모습마저 보인다. 進香使行이 음력 7월에 떠났으므로 계절은 가을이며 날씨가 맑아 말 타고 집을 나선다.

18, 19세기는 燕行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8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유연해진 朝-淸 간의 관계 속에서, 燕行使節은 활기를 띠게 된다. 사절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三使 관원과 首譯 등 정치 외교적 공무를 행하는 사람들 및 인문 교양을 갖춘 문인지식인들을 두루 참여시키기 마련이었다. 연행 자체가 정치와 경제를 위시한 공무 이외에 ‘문화행사’로서의 기능이 동반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수행원들의 층은 한결 더 두터워졌다. 특히 입신하지 못한 사대부 출신이나 신분적 한계가 있는 중인계층들은 연행을 통해 청조 문인들과 교류하며 일종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대산의 경우는 회곡의 知遇를 입은 것 외에도 누대에 걸쳐 연행의 경험이 있는 가문적 배경이 존재했다. 雪峰 姜栢年은 1660년 冬至副使로 연행했고, 고조부인 강현은 1701년 訃告

山祠, 金臺, 燕京, 十三山이며, 나머지는 副使 朴晦壽와의 수창시 혹은 道中有感류의 시들이다.

使로 연행에 임했다. 또한 증조부인 표암 강세황 역시 70이 넘는 노령의 나이로 1784년 進賀謝恩兼冬至使行的 副使로 입연하여 연행록을 남긴 바 있다.²⁶⁾ 선대의 연행 경험은 대산에게 충분한 지침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은 운석 조인영이 연행을 앞둔 대산에 써준 송시이다.

送姜對山入燕 강대산의 입연을 전송하며

快馬輕裝幾日還	빠른 말 가벼운 행장 며칠 만에 돌아올까
關河渺渺戶庭間	關河가 아득해도 뜰 사이라네
此行知爲燕人見	이번 여정 燕人을 알기 위한 것인 줄 아니
我喜燕人見對山	燕人이 그대를 알아본다면 나 또한 기쁘리라

雲石 역시 1815년 재종형인 趙鍾永을 따라 입연한 경험이 있었다. 關河가 먼 곳 같아도 지나고 나면 금방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도 겸한 듯하다. 3·4구는 친밀한 사이로서 대산이 연행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미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前代의 先學들이 연행을 다녀와 북학의 열풍을 몰고 왔다면, 19세기로 들어서면서 그 관심의 축이 청조 학인과의 교류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운석이 대산에게 준 송시에서도 그 편린을 발견할 수 있다. 풍양 조씨 일문의 庇護를 받은 중인 秋齋 趙秀三 역시 6차례 연행을 하면서도 “遠遊非北學”이라 하여 애초에 그의 목적이 청조 문인과의 교류에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 운석은 “청조 학인들도 그대와 같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사실에 나 역시 기쁘다”라는 마음을 전하며 중국에 초행길인 대산의 기를 북돋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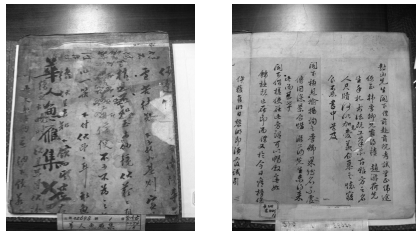
그러나 『대산집』에 수록된 연행시에는 청조 문인들과 교류한 흔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通州道中」 7수 가운데 제2수와 제3수²⁷⁾

26) 1784년 사행에 참여한 三使는 정사 李徽之, 부사 姜世晁, 서장관 李泰永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실록』, <정조 8년 갑진, 10월12일조> 참조.

27) 姜潛, 『對山集』 乾, 卷1, 「通州道中」 7首 中 “一舶香茶百萬資, 逐風隨水足生

에서 청조 문인들과 필담을 나눈 정황을 예상할 수 있다. 제2수에서 그는 “남국의 선비 그대를 좇아 아래서 만나니/ 붓끝으론 산수화에 강남땅 이야기/ 배를 타고 곧바로 그대 따라가/ 이 가을 풍교에 배대고 종소리 듣고프다[南士清儀燭下逢, 筆端山水話吳淞, 將船直欲隨君去, 秋泊楓橋聽夜鍾]”라 하였다. 아마도 異國의 문인을 만나 필담을 나누고 그림을 그렸던 듯하다. 이를 두고 대산은 唐 張繼의 「楓橋夜泊」을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華人魚雁集』을 통해 교유의 일단을 추정할 수 있다. 『華人魚雁集』은 대산이 연행 당시 청조 문인들에게 받은 簡札을 모아 놓은 것이다. 대산에게 간찰을 준 청조 문인은 朱善旂²⁸⁾, 李文翰²⁹⁾, 慶霖³⁰⁾ 등인데, 대산의 글은 실려 있지 않아 그가 받은 글만으로 정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쉽다.



『華人魚雁集』(국립중앙도서관소장)

涯, 知君應是浮梁客, 明月江州怨別離”

- 28) 朱善旂: (1800-1855) 字는 大章이며, 號는 建卿으로 浙江平湖人이다. 淸學者. 朱爲干子, 道光辛卯(1831)에 舉人이 됨. 國子監助教, 俸滿記名六部主事, 武英殿校理 등을 역임했다. 가학의 연원이 있으며 저서로는 『敬吾心室彝器款識』 1권이 있다. 『平湖縣志』, 『朱氏重修遷浙支譜』에 그 기록이 보임.
- 29) 李文翰: (1806-?) 字는 雲生, 宗甫이며 號는 蓮舫으로 安徽宣州人이다. 道光八年 舉人이 되었으며, 陝西岐山知縣, 巡撫張祥河薦升四川嘉定知府, 夔州知府 등을 역임했다. 文名이 있었고, 音律에 밝았으며, 書畫에 능했다. 書法으로 명망을 떨쳤다.
- 30) 생몰년 미상. 대산과는 직접 만나 酬唱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산집』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산 선생께 드립니다. 제가 전에 貢院考試의 學正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韓季卿[韓雲海]의 처소에 들러 游荷 趙先生[趙秉龜]의 手札을 보았습니다. 서법이 공교하고 필세 역시 고아하여 명인의 척독이라 이를 만하니 어찌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羨慕하는 마음 가득하여 잠 잘 때나 먹을 때에도 잊지를 못하였습니다. 편지에서 선생께서도 지극히 칭송을 받으신다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계경도 과연 명불허전이라 하여 함께 마음 깊이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정경산[鄭元容] 선생과 주계[鄭基世; 鄭元容의 장자] 형, 金鴻臚께서는 어찌 한자도 답신이 없으시답니까. 혹 옛 친구를 잊으셨는지요. 만일 만나시게 되면 저는 무탈하며 다행히도 품계가 올랐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은 문안을 여쭙는 것입니다. 편안히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날이 춥고 길이 멀니다. 진중 하시기를. 이만 줄입니다.³¹⁾

使星纔見逐春來	사신들 겨우 보려 봄 좃아 왔건만
忽報驪駒破曉催	말 타고 새벽 깨쳐 급히 간다 전해오네
未得相逢卻相送	만나지도 못했는데 다시 보내야하니
萬千離緒海東隈	수많은 이별의 감정 동쪽 끝에 있다오

(十月朔日甫與)³²⁾

……

위의 편지는 建卿 朱善旂가 보낸 편지이다. 편지의 내용이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들이 직접 만났음은 확신할 수 없다. 舉人 韓雲海의 처소에서 보았던 游荷 趙秉龜와 대산의 書法에 감탄하며 그 재주를 흠모하는 마음이 대산을 통해 전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전에 사행을 왔던 經山 鄭元容과 그의 아들 鄭基世에게 안부를 전하며 다른 인편에 편지를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어 서운한 심사를 비치기도 한

31) 『華人魚雁集』, 朱善旂 簡札 中, “對山先生閣下, 僕前赴貢院考試學正, 歸途便至, 韓季卿處, 得讀趙游荷先生手札. 書法既工, 筆亦古雅, 方之名人尺牘, 何以加焉. 愛羨企慕之懷, 寢食不忘, 書中道及, 閣下極見揄揚, 詢之. 季卿果然名不虛傳, 同深景企 …… 鄭經山先生及伊文郎周溪兄金鴻臚, 何皆無一字見寄, 豈忘舊雨耶. 如相見時道及故人無恙, 已倖進一階矣. 此復即問行安, 嚴寒道遠, 伏惟 珍重不宣. 朱善旂 再拜 九月朔日”

32) 『華人魚雁集』, 朱善旂 簡札 中.

다. 韓雲海는 청조 舉人으로 季卿은 그의 字이다. 金石 考證學에 志趣를 지닌 인물로 1829년 유하 조병귀가 서장관으로 입연했을 때 교유가 있었다.³³⁾ 아마도 한운해가 游荷의 필적을 소장하고 있었던 듯하다. 유하 역시 글씨로 명망이 있던 인물이다. 주선기가 경산이나 유하의 안부를 대산 편에 전하려 했던 데에는 이미 이들이 서로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대산이 이들 사이의 架橋가 된 셈이다. 이는 대산이 받은 편지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인물들의 網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공유의 자료이기도 하다. 대산의 연행을 통해 이전의 정황들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또한 蓮舫 李文翰은 편지에 시를 적어 보냈는데 “부평초 같은 신세 만날 날 언제일지 모르는데/ 기러기 잉어에 소식 전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터[萍水相逢無幾日 鴻魚有信也經年]”³⁴⁾라 하여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燕行에서 만난 兩國의 문인들은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항상 永別의 심정으로 전송한다. 李文翰 역시 당시 書畫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다. 이외에도 대산은 慶霖 등과 함께 詩文 수창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慶霖의 편지 내용에는 몇 번이고 자신의 拙詩를 요구하는 대산에게, 부끄럽지만 詩를 보낼 터이니 拙을 논하지 말고 일소에 부치라 하였다. 이들이 서로 수창한 정황은 편지를 통해서만 짐작할 뿐이다.

發燕京 연경을 떠나며

疎柳都門暗恨生 성긴 버들 사이의 도성문, 모르는 새 아쉬움 이는데

- 33) 1829년 동지겸사은사행에 유하 조병귀가 서장관으로 입연했을 당시 추재 조수삼이 반당으로 수행했다. 『秋齋詩稿』에는 이들이 교유한 청조 문인들에 대한 회인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한운해 역시 그 중 한명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拙稿,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 34) 『華人魚雁集』, 李文翰 簡札 中, “萍水相逢無幾日, 鴻魚有信也經年, 萬里黃雲落葉天, 夕陽無語何離筵, 長亭楊柳絲絲斷, 庚嶺梅花樹樹先, 茫茫滄海至何處, 朝去朝來意惘然”

四旬強半住燕京	40일 반 넘어 연경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樓臺忽失繁華夢	누대는 갑자기 변화하던 꿈을 잃고
城市俱含送別情	도시도 온통 송별의 정 품었구나
滿袖尋常歌筑淚	소매 가득 심상한 노래와 악기에도 눈물을 닦고
出門依舊焉車聲	문 나서니 예전과 다름없는 수레 소리
前程杳似初長夜	앞길 아득해 처음 긴 밤 지새는 듯하더니
直到灣江始五更	바로 만강에 도달하자 비로소 오경.

대부분의 연행사에서 燕京의 변화한 風情을 묘사하였으나 대산은 자세히 남기지 않았다. 단지 연경을 떠나면서 매우 아쉬운 소회를 토로했다. 樓臺와 城市가 대산이 떠난다고 변할까 만은 주변이 사물에 온통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켰다. 박승휘는 서문에서 대산이 연행을 다녀온 뒤로 시야가 넓어지고 시가 進一步 했다고 언급했다. 젊은 시절의 연행 체험이 그의 삶에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할 것이다. 『華人魚雁集』에 수록된 간찰들을 모아 놓은 것도 그 연장선이 아닐까.

2. 檢書官 발탁과 興陽 監牧官 시절

대산 강진이 검서관으로 선발된 것은 1837년(31세)이다. 연행에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기존의 자료에서는 그가 규장각 검서관이 된 시기를 1842년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日省錄』과 『內閣日曆』을 참조하지 않아 빚어진 오류라 여겨진다. 『일성록』 1837년 6월조에 그가 검서관의 取才에 응한 기록이 있으며³⁵⁾, 당시 摛文院 提學은 雲石 趙寅永이었다. 대산은 그 취재에서 首席을 차지하였으며 곧바로 檢書官職을 수행했다. 또한 『대산집』 권1의 「拜 奎章閣檢書之官直中志感」, 「禁直月夜」, 「直中守歲」 등의 시는 모두 1837년에 지은 것으로³⁶⁾ 근무 중의

35) 『日省錄』, <1837년 6월 6일>, “設檢書官取才于摛文院 提學 趙寅永 待教 金英根, 以嘉木秀而繁陰爲排律題 幼學姜潛居首”

36) 『대산집』 편간의 순서상 이들 시는 1838년 작품 이전에 배열되어 있다.

서회를 읊은 것이다.

拜 奎章閣檢書之官直中志感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어 근무 중에 느낀 비를 적다

寶樹春長住	보배로운 나무는 봄에 오래 서 있고
瓊樓日倍遲	아름다운 누대 해는 배로 더디다
圖書攀瑞氣	도서에는 상서로운 기운 서렸고
鐘磬闕清時	종경은 정명한 때를 알리는구나
榮忝爛藜筆	영예롭게도 내각의 붓 빛낼 수 있게 해주셨으니
誠微補袞絲	정성 미약하나마 임금의 말씀 보좌하리라
吾王躬至化	왕께서 몸소 지극한 교화 이루셨으니
先自二南詩	먼저 주남 소남의 시에서 시작하셨네

위의 시는 대산이 검서관에 임명된 초기의 저작이다. 화려한 궁궐에서 업무를 보게 된 데 대한 감사함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아름다운 누대, 서기어린 도서, 명징하게 들리는 鐘磬 등은 규장각의 우아하고도 학예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된다. 아울러 화려한 공간에서 일하게 될 得意까지 행간에서 읽혀진다. 그는 「禁直月夜」에서도 “일찍이 天門 만리나 멀다 여겼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내 몸 鳳池에 이르렀나”³⁷⁾라 하였다. 요원했던 소망을 이룬 만족감을 드러냈다.

통상적으로 검서관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閣臣을 보좌하여 규장각의 도서 편찬과 간행에 관련한 업무 수행 2) 差備官으로서 궐 안팎의 행사에 차출 3) 임금을 扈從하는 일 4) 入直, 즉 숙직을 서는 일이다. 특히 차비관으로서의 임무는 서적과 직접 유관한 일 외에도 궐의 의식을 맡아 주관하거나 시험이 끝난 후 詩卷을 거두어들이는 일까지 상당히 많은 업무를 소화해내야 했다.³⁸⁾ 때문에 과중한 업무는 검서

37) 姜潛, 『對山集』 卷1, 「禁直月夜」, “蓬萊咫尺瑞雲流, 宵靜仙居早見秋, 甲帳清風同漢展, 玉簫明月似秦樓, 園林氣鬱長承渥, 花鳥恩深不識愁, 曾謂天門猶萬里, 何緣身到鳳池頭”

38) 박현욱, 「朝鮮 正祖朝 檢書官의 역할」, 『서지학연구』 20집, 서지학회, 2000. 참조.

관 직에 대한 자부심 이면에 피곤함과 자괴감 등을 동반했다.³⁹⁾ 대산의 시에서도 분명 그러한 면이 엿보인다. 숙직을 서면서 뜻 맞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酬唱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절의 간극이 있으나 초정 박제가 또한 「出直」이라는 그의 시에서 “나홀에 한 번 집에 들어가는데/ 늦은 귀가는 언제나 해질 무렵[四日一歸家, 歸晏日常晡]”이라 하여 그 고단함을 보여 주기도 했다. 대산은 入直으로 인해 근무를 서며 除夕을 보내야 하는 날도 있었는데 다음은 그와 관련한 시이다.

直中守歲 입직을 하며 새해를 맞다

座守誠何意	앉아서 밤새는 것 참으로 무슨 뜻인가
靑綾耿不眠	靑綾이 눈 부셔 잠 이루지 못해서지
明星垂戶內	明星[새별]은 문 안에 드리웠고
殘漏滴燈前	殘漏는 등 앞에서 떨어지는구나
畢竟消今夜	결국 오늘 밤이 사라지면
無端作舊年	갑자기 묵은해가 되리라
吾語頻送爾	나의 시를 자주 너에게 보내 줄 테니
於鬢劇堪憐	살찍을 몹시 가엽게 여겨다오

대산은 검서관에 임용된 첫 해의 세밑을 入直하며 보냈다. 그는 시에서 ‘靑綾이 눈부셔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 하였는데, 청릉은 漢代에 尙書郎이 建禮門에서 숙직할 때 지급 받았던 푸른 비단 잠옷을 말한다. 때문에 ‘청릉’ 자체가 숙직하는 시종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 7·8구는 앞으로 반복될 검서관의 入直을 각오라도 한 듯이 세월을 달래는 모습이다. 숙직할 때마다 이렇게 시를 써서 줄 테니, 한해를 넘기면서 차츰

39) 박종훈의 「초정 박제가 시에 나타난 자부심과 내적 갈등 양상」(『온지논총』 29집, 온지학회, 2008.)과 황인건의 「박제가 시에 나타난 검서관 체험 고찰」(『동아시아문화연구』 39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은 박제를 위시하여 正祖朝 검서관들의 자부심과 내적 갈등에 대해 논한 연구이다.

하얗게 변한 자신의 살쩍을 가엾게 여겨달라는 요청이다. 이듬해인 1838년에 지은 「院夕」에서 그는 “검서직 이어가길 바라지만/ 녹봉 헤아리니 侏儒에게도 부끄럽다[檢書成脈望, 量祿愧侏儒]”라 하여, 검서관 생활이 명예롭기는 하지만 薄俸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1837년부터 1840년까지 3년간의 검서관 생활을 하다가 1840년 12월 그는 興陽의 監牧官을 겸하게 된다.⁴⁰⁾ 감목관은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이다. 『大典會通』에 따르면, 30개월을 만기로 하는 감목관(종6품)의 정원은 경기도에 5인(江華·水原·南陽·仁川·長峰島), 충청도에 1인(瑞山), 경상도에 3인(晉州·蔚山·東萊), 전라도에 5인(興陽·順天·羅州·珍島·濟州), 황해도에 3인(海州·豐川·長湍), 함경도에 3인(咸興·端川·穩城), 평안도에 1인(鐵山)을 두었다.

대산이 감목관으로 부임한 興陽은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 지역의 옛 지명이다. 30개월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흥양의 감목관 생활을 하면서 일대의 명승지와 지역 景物에 대해 묘사한 시를 다수 남겼다. 또한 지역민의 일상을 퓌진하게 그려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일성록』 1842년 8월조에는 전라좌도 암행어사 李宗秉이 올린 書啓에서 姜潛은 文華가 있고 재주가 뛰어나 牧養의 일에도 어려움이 없다라 보고한 바 있다.

다음은 그가 감목관 부임 초기에 지은 시이다.

寰瀛閱讀朴菱洋⁴¹⁾板上詩 并序⁴²⁾ 환영각에서 능양 박종선의 판상시를 읽다 (并序)

朴楚亭齊家, 李雅亭德懋, 具以文詞肩稱中國, 官皆內閣檢書. 余猥忝此職而先輩

40) 『내각일력』, <1840년 12월조>, “檢校提學 朴綺壽 拜 宗簿提調 檢校直提學 徐憲淳 拜 內醫提調 檢書官 姜潛 拜 興陽監牧官”

41) 朴宗善은 『연암집』 제7권, 『별집』, ‘鍾北小選’에 실려 있는 「菱洋詩集序」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42) 姜潛, 『對山集』, 乾, 卷2.

風韻已邈矣。菱洋朴公宗善，以檢書出牧于茲，余又躡公相距，已五十年，公之跡亦泯矣。然公之所蒞，寔瀛閣巖然，若相待而遍閱前人題詠，亦無過於公之所詠詩，則於此可以仰當時文華之盛也

초정 박제가와 아정 이덕무는 모두 文詞로 중국의 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관직은 모두 내각 검서관이었다. 내가 외람되어 이 검서직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선배들의 風韻에는 아직도 멀었다. 능양공 박종선은 검서관 출신으로 이곳[홍양]에 감목관으로 나왔다. 나도 공을 따르고자 하지만 50년의 세월이 떨어져 있어 공의 자취 또한 없어졌다. 그러나 공께서 창건한 환영각은 우뚝하게 남아 있어 마치 마주하여 전인의 제영을 두루 열람하는 것 같다. 게다가 공께서 지은 시는 허물할 것이 없어 여기서 당시 문화의 성대함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다.

楚雅文章日下知	초정과 아정의 문장 후대에 알려져
嗟余生晚未肩隨	내 늦게 태어나 좇지 못함 한스럽네
南來心折菱洋老	남쪽으로 와서 능양공께 심복하러
盥讀樓頭八咏詩	정결히 하고 누각머리에서 팔영시를 읽는다

菱洋 朴宗善(1759-1819)은 燕巖의 「능양시집서」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그는 연암의 三從兄인 朴明源의 庶長子로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다. 그 역시 대산이 부임한 홍양지역의 감목관을 지낸 바 있다.⁴³⁾ 대산은 시의 并序를 통해 이덕무나 박제가, 박종선과 같은 선배 검서관들의 훌륭한 궤적을 따르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동시대에 태어나 그들과 학문을 논하고 시문을 수창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홍양의 남쪽 해안은 수많은 섬이 있기에 대산은 그 일대의 金塘島, 古今島⁴⁴⁾에 들러 어촌의 풍광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섬의 일상을 소박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43) 『내각일력』, <1797년 12월조> 외 2건에서 홍양 감목관 박종선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44) 『대산집』 乾, 권2의 「古今島」, 「望海谷」 등은 모두 고금도를 방문하고 지은 시이다. 海谷은 希谷 李止淵의 아우 李紀淵으로, 1840년-1849년까지 古今島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대산이 감목관으로 부임하면서 해곡을 찾아 방문했다.

金塘午飯還向舟次⁴⁵⁾ 금당에서 점심을 먹고 배로 돌아가는 길에

中婦捕海族	부인네는 바닷고기 잡고
長男鑿山菑	장남은 산밭을 일군다
翁姑與鷄犬	늙은 부모는 닭, 개와 함께
守屋不相離	집 지키며 떠나지 않네
忽見官人至	갑자기 관리가 오는 것 보더니
應門多慚辭	문에서 응하는데 하소연 많구나
官人豈無米	‘관리가 어찌 쌀이 없겠소’
借火竹中炊	불을 빌려 대나무로 밥을 한다
歎息漁村景	어촌 광경에 탄식하지만
閒靜迺如斯	한가하고 고요함이 그래도 이와 같구나
回首有餘戀	돌아보니 아직도 미련이 남아
注目立移時	떠날 때까지 바라본다
蠔甲牛矢路	굴과 조개 쇠똥이 널린 길에
破網掛疎籬	찢어진 어망은 성긴 울타리에 걸려있네

金塘島는 전남 완도군에 속한 작은 섬이다. 대산이 금당도에 들렀다가 우연히 民家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서 목도한 어촌의 광경을 그려낸 시이다. 대산 시의 특징 중 하나는 苦澁한 詩語를 자제하고 평이하면서도 冼진하게 묘사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수식이 없고 소재 역시 거창하지 않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회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特長이 있다. 위의 시는 그러한 대산 시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금당도는 남자가 산밭을 일구고 여인은 물질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어촌 마을이다. 추측컨대, 주막이 없어 점심 끼니를 직접 해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산 일행은 한민가로 향한다. 집을 지키던 노부부가 아마도 사는 게 형편없어 관리를 대접할 양식이 변변치 못하다고 했나보다. 이에 대산은 “관리가 설마 쌀

45) 姜潛, 『對山集』 乾, 卷2.

이 없겠소”라 응대하고 불을 빌려 점심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만 폐를 끼치지 않고 끼니를 해결해서 그나마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0구에서 “閒靜”이라 표현한 것은 조용한 마을의 걸모습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마음이 아닐까 한다.

島中滯雨⁴⁶⁾ 섬에서 비에 발이 묶이다

南國多春雨	남쪽에는 봄비가 많이 와서
終宵不肯開	밤새도록 날이 개지 않네
腥風漁舶過	비릿한 바람이 어선을 지나고
黑影瘴雲來	검은 그림자 장기구름 따라 온다
颯颯鳴籬竹	췌하는 바람소리 대울타리 울리고
霏霏灑岸梅	내리는 비 언덕의 매화 씻겨준다
劇憐愁絕地	몹시도 가련하다 외딴 곳에 수심 겨워
歸客意悠哉	돌아가려는 객은 걱정이 끝이 없네

섬에 들렀다가 비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를 묘사한 시이다. 어느 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古今島」 시에 연이어 배열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고금도를 지칭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릿한 바람은 어선에 불어오고 남쪽의 습기를 가득 담은 먹구름이 드리워 어두운 분위기를 그려낸다. 그와 동시에 울타리의 대나무, 비에 씻긴 매화로 청량한 색깔을 살려준다. 날씨 탓을 하며 섬에서 며칠 묵고 갈 수 있지만 公務 때문에 불안한 대산의 심리가 그대로 전달된다.

홍양의 감목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전라남도의 주요 명승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南原府를 방문하여 그곳의 승경과 고적을 竹枝詞 형식으로 남겼는데 「帶方竹枝詞」 5수가 바로 그것이다.

「帶方竹枝詞」의 제목은 南原의 옛 지명에서 착안한 것이다. 李裕元의

46) 姜潛, 『對山集』 乾, 卷2.

『林下筆記』에 이르길 “南原城은, 唐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劉仁軌를 帶方州刺史로 삼아서 熊州에 留鎮토록 한 다음 이곳에다 성을 쌓고는 이를 대방성이라고 칭하였던 곳인데, 남원부를 대방이라고 일컫는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⁴⁷⁾라 하였다. 대산은 남원의 옛 명칭을 따서 고풍스럽게 표현했다. 죽지사 5수에 담긴 내용은 지역사와 관련 있거나 당시 남원의 人情鎖事 등이다.

帶方竹枝詞⁴⁸⁾ 대방죽지사

1.

雲峰南去草離離	운봉의 남쪽 수풀 우거진 곳으로 가면
半月城中豎捷碑	반월성 가운데 대첩비가 서 있네
太祖當年斬拔賊	태조가 당년에 왜적을 참하여
至今石血黯黷脂	지금까지 돌에는 핏자국이 검붉다

(註: 황산대첩비가 운봉에 있다[荒山大捷碑在雲峰])

2.

東征壯士此經過	동정 나간 장사가 이곳을 지나며
院峙題名石不磨	여원치에 이름 새긴 돌은 여전하네
躍馬橫戈劉總督	말 달리고 창 겨누던 유정 총독
秋風曾哭大凌河	가을바람에 일찍이 대릉하에서 곡했지

(註: 여원치에 유정이 이름을 새겨 놓았다.[女院峙有劉縉題名])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지역사와 관련한 인물들과 그 유래를 읊은 것이다. 제1수에서는 雲峰에 세워진 荒山大捷碑를 묘사하였는데, 고려 말에 太祖가 왜구를 만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참했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였다. 다소 과장이겠지만 여전히 핏자국이 남아 있다 하여 그 현장을

47) 李裕元, 『林下筆記』 제13권, 「文獻指掌編」, ‘帶方城’ 참조. 이 외에도 李瀼, 『星湖僿說』 제19권, 經史門에도 帶方國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48) 姜潛, 『對山集』 乾, 卷2.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제2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파견된 명나라 장수 劉綎에 관한 내용이다. 유정이 이곳 여원치를 지나면서 돌에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한다.⁴⁹⁾

4.

山城上與白雲齊 산성은 높아 흰구름과 나란하고
 山杏花時山鳥啼 산 살구 꽃필 때 산새도 우네
 約伴探春新結束 짝을 지어 봄 찾기를 새로 약속하고
 南門市上買靑鞋 남문의 저자에서 짚신을 산다

(註: 남원부 사람들은 매년 저문 봄이 되면 산성을 유람한다[府人每值暮春盛遊山城])

5.

水砧搗紙曬晴沙 물방아로 종이 잘라 흰 모래밭에 말리니
 題品便宜白雪花 평하자면 마땅히 흰 눈 꽃이라

49) 이와 관련하여서는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권68, 「寒竹堂涉筆」, ‘劉綎題名’에 그 유래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雲峯의 서쪽 고개를 女圓嶺이라 하고, 동남쪽 고개를 八良嶺이라 하는데, 여원령은 높고도 험준하여 평지와의 거리가 10리나 된다. 그리고 이따금 검은 돌이 병풍같이 서 있는데, 돌 하나의 높이가 한 길 남짓 하였다. 그 돌에, ‘만력 21년 계사 여름 5월에 정왜 도독인 홍도 성오 유정이 이곳을 지나다.[萬曆二十一年癸巳歲仲夏月征倭都督洪都省吾劉綎過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글자의 크기가 손바닥만한 데 힘이 있어 불만하였다. 이 돌을 지나 조금 동쪽으로 가면 길 남쪽에 돌이 깎아세운 듯이 西向하고 서 있다. 거기에는, ‘만력 22년 갑오 봄 2월에 정왜도독 예장 성오 유정이 또 지나다.[萬曆二十二年甲午歲仲春月征倭都督豫章省吾劉綎又過]’라고 새겨져 있는데, 글자가 앞의 돌에 새긴 것과 비교하면 조금 해정하다. 계사년에 새긴 글씨에는 붉은 색으로 메웠고 돌이 드러나게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갑오년에 새긴 것은 글자와 돌이 모두 검고 돌이 가려져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임인년(1782, 정조 6) 가을, 다시 지날 때에 비로소 발견하였다.[雲峯之西曰女圓嶺 東南曰八良嶺 女圓高峻 距平地十里 往往黑石如屏 一石可丈餘 刻萬曆二十一年癸巳歲仲夏月 征倭都督洪都省吾劉綎過此 字大如掌 硬險可觀 過此石稍東 路南有石削立西向 刻萬曆二十二年甲午歲仲春月 征倭都督豫章省吾劉綎又過 字較前石稍整方 癸巳刻填紅而露立 故人易見之 甲午刻 字與石純黑而隱立 故人或未見 壬寅秋再過時 始見之]”

染得江南雲五色 강남의 오색구름 그 빛으로 물들이니
採箋無數薛濤家 무수한 설도의 집에서 시전지를 구하네
(註: 남원부의 기녀들은 색종이[色箋] 만들기를 잘 했다[府妓善於染色箋])

제4수와 제5수는 대산이 목도한 당시의 南原 풍경이다. 꽃이 만발하여 봄이 무르익으면 산성에는 賞春客으로 봄빌 것이다. 제4수에서 봄마다 사람들이 찾는다는 ‘산성’은 아마도 南原山城을 지칭한 듯하다. 제5수에서는 남원의 기녀들이 종이 염색을 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구현했다. 대산은 능숙한 솜씨로 五色箋을 만드는 남원의 기녀들을 唐代的 妓류시인 薛濤에 비유했다. 韋臯·元稹·白居易·杜牧 등의 유명 문인들과 唱和하면서 직접 松花紙와 짙은 小彩紙를 만들어 당시의 유명 인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대산은 남원 기녀들이 만든 색전을 설도전에 견준 것이다.

30개월의 홍양 감목관 생활을 마친 후 대산은 1842년 가을에 석애 조만영과 海嶽을 유람하고 이듬해 松澗 趙秉峻이 庫曝史의 명을 받아 五臺山 外史庫로 행할 때 다시 동행한다.⁵⁰⁾ 1847년 안협 현감으로 부임하기까지 그는 검서관 직을 유지하면서⁵¹⁾ 지인들과 사회에 참여하거나 검서관 동료들과 수창하기도 한다.

3. 安峽 縣監 시절과 쓸쓸한 만년

대산은 홍양 감목관의 임기를 끝내고 검서관직을 이어오다가 1847년 安峽 縣監으로 부임한다.⁵²⁾ 그는 이 시기에 지방관으로서의 소회를 소

50) 姜濬, 『對山集』 乾, 卷2, 「壬寅秋 石厓趙公作海嶽遊 余行得御矣 松澗內翰秉駿 公之從子也 今秋承命往哺 五臺藏史 將復踰嶺躡公前轍 以余曾遊 要與之伴 公又命之 辭不獲人 或有齎糧遠遊而竟未就者 余之連年辦此行 亦奇緣也」.

51) 홍양 감목관 시기를 지나 안협 현감이 되는 1847년 전까지 다시 入直하며 쓴 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內閣直中」, 「雨後直中漫吟」, 「八月十三也直中又拈」, 「內院直中和呈朴社臯」 등 다수.

52) 『일성록』, <1847년 6월조>.

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관아에서의 일상을 담담하게 풀어내는가 하면, 백성들의 삶을 직면하고 연민의 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監糶」이다.

監糶⁵³⁾ 환곡을 감독하다

①

吏人請我親監糶	관리가 내게 청해 친히 환곡 감독 해주십사
上倉堆粟多幾石	상창에는 곡식이 몇섬이나 쌓여 있네
(註: 읍에는 上倉과 下倉이 있다[邑有上下倉])	
肩輿吹角出官門	견여타고 피리 불며 관문을 나서는데
峽岨峽嶺俱辟易	안협 백성, 소들까지 모두 비켜서는구나
雲凍日薄嘯鷗鶻	구름 얼고 해는 얼어 술개 부엉이 울고
亂峰矗雪窮陰積	난봉에 눈 내려 그늘까지 쌓여 있다
大夫之簣不稱宜	대부 자리는 어울리지 않으나
扇香坐拂臯比席	퍼지는 향 스치니 훌륭한 자리로다
侍兒點茶勸當寒	시종아이 茶 따르며 추위 견디시라는데
恐民冒余轟飲癖	백성들이 茶 좋아하는 癖을 나무랄까 걱정되네
爲民實難官亦難	백성 노릇 참으로 어렵고 관리 노릇도 어렵다
動止何由中繩墨	행동거지 어찌 먹줄처럼 똑바를 수 있겠는가

②

一吏匍匐驗庫封	한 관리는 엎드려 창고를 봉했다며 보여주고
一吏逡巡披簿籍	한 관리는 주저하며 장부를 열어주네
秤東斛西布庭心	뜰 가운데 저울과 곡식 동서로 펼치니
囂塵盆起趨衆役	와자지결 먼지 일며 역부들이 모여든다
包倍藁網解紛紛	포대와 짚그물을 분주하게 풀어 놓고
背負肩荷成什百	등에 지고 어깨에 매니 什百이 되는구나
短衣蓬髮蚩蚩兒	짧은 옷 헝클어진 머리의 어리석은 아이들
濶袖蒼髯賈貿客	넓은 소매 푸른 수염의 무지한 객이라
提轡使遠叱牛渡	고삐 당겨 멀리 가서 오줌 싸라 소 꾸짖고

53) 姜潛, 『對山集』 乾, 卷2.

庭半割與踏泥跡

뜰의 반은 진흙 밟은 흔적으로 내주었다

③

傾包盛斛斛如山
 小罽飛傳穀顏色
 願之曰可內實慙
 四十不分菽與麥
 一役執簸立上風
 一役執秤當中畫
 呼邪舉斛復納包
 且蹴且縛聲索索
 黑衣小校立指揮
 計籤入倉擔之脊
 斛傍畫剩做人情
 秤者悲少顏發赤
 官怒可犯衆難當
 視不敢忤行蹶蹶
 心知此屬虎於民
 威戢非無箠楚謫
 但示貌畏莫售奸
 煩呵細詰應無益

포대 기울여 곡식을 담으니 산처럼 쌓이고
 다섯 되씩 날리듯 전해주며 낮빛도 좋구나
 턱짓하며 됐다고 말하지만 속은 참으로 부끄러우니
 40이 다되어도 숙맥을 구별 못하네
 역부 하나 까불리니 바람이 일고
 역부 하나 저울 다니 정확하게 들어맞네
 어이차, 곡식 들어 다시 포대에 넣는데
 차기도 하고 말기도 하며 썹썹 소리 내네
 검은 옷의 小校가 서서 지휘하는데
 표시 해야리고 등에 진 것 공간에 들인다
 되질하며 남는 걸 더는 게 사람의 정일텐데
 무게 다는 자 적다고 성을 내며 얼굴 붉히네
 화내는 관리에게 따져볼 수 있지만 여럿도 감당키 어려워
 보고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행동한다
 (내가) 마음으론 이들이 백성에게 호랑이 노릇하는 걸 알아
 위엄으로 단속하는 일엔 회초리로 꾸짖는 게 없지는 않은데도
 겉으로만 두려워하며 간사한 행동 안하디는 걸 보여줄 뿐이니
 자꾸만 꾸짖고 따져 묻는 건 응당 무익하리라

④

粒米散庭頻蹙眉
 衆隸蹂踐不知惜
 今冬雨數地沮洳
 禾黍未打同未穫
 浦田之豆半沉沙
 畚田之豆多蟲蝕
 糶納愆納罰俱答
 糶夫惴惴皆屏息
 況復營飭粟換錢
 村機軋軋終夜織
 得錢納官限已違

날알을 뜰에 흩어 자주 눈썹 찡그려도
 노복들은 밟아대며 아까운 줄 모른다네
 금년엔 겨울비 많이 내려 땅이 질척해
 벼 기장 타작 못하니, 수확이 없는 것과 같구나
 浦田의 콩은 반이나 잠겼고
 새밭의 콩 또한 벌레 먹었지
 추납과 건납 모두 불기형을 받으니
 색갈이 온 장부 조마조마 모두 숨을 죽인다
 하물며 곡식을 돈으로 바꾸라는 명령까지 있어
 마을에선 베틀 빼걱대며 밤새도록 베를 짜건만
 돈 얻어 세금 내려 해도 기한 이미 어겨서

里任催進恣諄辱 이장은 재촉하고 쫓으며 마음대로 욕하네
 念此悶惻坐默然 이런 일이 슬프고 걱정되도 묵묵히 앉았으니
 徒費廩膳司何職 늬선만 허비할 뿐 무슨 일을 맡았는지.

「監糶」은 7언으로 된 장편고시 형식으로, 대신이 직접 환곡의 현장을 감독하게 되면서 목도한 광경을 사실적인 필치로 묘사한 작품이다. 詩는 4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하여 감상 할 수 있다. ①단락은 관리의 부탁으로 환곡 현장을 감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견여를 타고 관문을 나서는 모습부터 전개된다. 시종 아이는 추위에 언 몸을 녹이라며 茶를 건네주는데, 마시기에도 조심스럽다. 혹시라도 백성들의 눈에 자신이 호사로운 茶癡을 지닌 것으로 비치면 어쩌나 고민하는 모습이다. 백성들도 그들의 삶으로 고단하겠지만, 이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면 행동거지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 먹줄처럼 정확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만큼 그들의 이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리로서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난 구절이다.

②단락은 대신이 上倉으로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현감이 직접 시찰을 나왔으므로 아전들은 환곡의 장부들을 챙겨 보여주는데 ‘주저주저 한다 [浚巡]’는 묘사 속에서 일 처리의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내비친다. 이어서 역부들이 지고 온 곡식을 마당에 풀어 놓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소들이 소변을 보며 혹시라도 곡식에 해를 끼칠까 한켠으로 모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묘사했다. 이는 당시 분주한 환곡 현장을 실감나게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③은 본격적으로 환곡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락이다. 역부들은 능숙하게 포대를 나르는데, 정작 감독을 하고 있는 자신은 나이 마흔이 다되도록 菽麥을 구별 못하는 처지이다. 그야말로 대신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책상물림 관리인 것이다. 이에 자신을 자책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며 진정함이 묻어난다. 현장을 살펴보니 아전들의 행태가 불만스럽다. 값싼 곡식을 되질할 때 수북이 담지 않고 딱 맞게 받아야

하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그러나 아전들은 수북이 담고서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성을 낸다. 하지만 이들을 통제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산의 입장이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환곡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일개 현감이 얼굴을 붉힌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마지막 ④단락은 고단하게 일해도 늘 세금이 짓눌리고 궁핍한 백성들의 삶에 연민을 느끼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끝을 맺는다.

왕실 도서의 편찬과 교정 문서수발 등의 업무로 내각 검서직의 생활은 피곤하고 바빴지만, 그 공간이 주는典雅함과 안락함은 누릴 수 있었다. 2년여의 홍양 감목관 시절을 제외한다면, 대산이 직접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당대의 현실에 직면한 것은 안협 현감을 지내면서이다. 대산의 눈에 비친 백성들은 위에서부터 잘못된 治政의 하중을 그대로 받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개혁할 용기도 없는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느낀다. 마지막 구절에서 대산은 미관말직으로서의 무력감을 고백한다. 그가 현실적으로 할 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연민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듬는 것뿐이었다. 그는 다음의 시에서, 백성들 살피기를 “고기를 기르듯”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解官 관직을 그만 두다⁵⁴⁾

解龜問前路	거북을 풀어 앞길을 물었더니
指日反吾廬	내 집으로 돌아갈 날 알려 주는구나
人吏彈琴外	벼슬살이는 쉼 타는 일 밖의 것이요
江山坐嘯餘	자연은 앉아 휘파람 분 다음이라
戀應三斗酒	그리움엔 응당 서말 술 마실게고
行且一擔書	떠나는 길 한 번에 짊어질 책뿐
繼我須無撓	내 뒤를 잇는 사람 흔들림 없기를

54) 姜潛, 『對山集』 坤, 卷4.

訓民似養魚 훈민은 고기를 기르는 것과 같다네

이 시는 1853년, 대산이 안협 현감 직을 떠나며 쓴 시이다. 첫 구절의 ‘解龜’는 손잡이를 거북 모양으로 만든 지방관의 印章을 풀어 놓는다는 말로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대산은 이를 重意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 마치 짐을 치듯이 거북을 풀어주며 앞날을 물어 보았더니 임소를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일러주었다는 것이다. 본래 그의 성정은 벼슬살이 보다는 琴 타는 일,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데 적합하다. 지방관을 그만 두고 떠남에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 엿보인다. 떠날 때에는 다른 짐 없이 책뿐이다. 그는 후임자에게 당부하는 말을 잊지 않는다. 즉 訓民의 방법은 ‘養魚’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산 입장에서 그들을 ‘고기 기르듯’ 보듬어 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적어도 그의 사회적 위치와 여건을 감안하면, 善政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살피는 것이다. 이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실천한 것 같다. 그는 안협 현감 재임 시절에 善政으로 褒獎 받은 일이 있었다.⁵⁵⁾ 1851년 4월과 6월에 강원도 암행어사 李啓善이 올린 書啓別單⁵⁶⁾에 의하면 그가 民庫를 잘 관리하여 옛 良吏의 治法에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성들이나 아전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 ‘어질다’라 했다는 것이다. 물론, 詩를 통해서도 관리로서의 무능함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지방관이 해야 할 소임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근거이다.

55) 『철종실록』, <1851년 4월 12일조> 참조.

56) 『일성록』, <1851년 4월조>, “…安峽縣監 姜潛乃若恬雅之操 兼以嚴明之政 吏奴逋之千餘石 準納精實分捧 倉無濫雜之奸 民庫錢之數千金 濫加撙節經用 今不過一千五百兩內外施諸事措諸 爲無愧古良吏治法 採於民 聽於吏 皆曰賢 太守來莅第觀茂蹟之著蔚 爲全省之最 保安察訪…”; <1851년 6월조>, “…安峽縣監 姜潛 吏奴逋之精實分捧 民庫錢之撙節經用 氷丁錢山火稅自官 蕩減勸民勤作課士讀書茂蹟之著蔚 爲全省之最上項 三邑前後守令之實績茂著 合施褒獎 金在獻 姜潛等 似當竝施陞敘調用之典…”

안협 현감직을 뒤로 하고 그는 廚院司饗院의 직을 수행했다. 이때 쓴 「廚院直中謾吟」에서 그는 落望한 자신의 처지를 읊기도 했다. 『일성록』과 『내각일력』에는 안협 현감 시절의 기사 이후로 검서관직과 관련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1852년 이후의 詩는 시사의 동인들⁵⁷⁾과 수창한 시들이 주를 이룬다. 석에 조만영(1776-1846)⁵⁸⁾, 운석 조인영(1782-1850), 유하 조병구(1801-1845) 등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비호하던 풍양 조씨 일문이 점점 세력을 잃어가면서 대산은 失意에 빠지게 된다. 특히, 忘形之交를 나누던 詩友 추재 조수삼(1762-1849)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추재 만년에 지은 「夢對山」⁵⁹⁾은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막역했는가를 보여주는 시이다. 추재는 시에서 “날마다 그대와 만나/ 창 열면 바로 대산이었지[日與君相見, 開窓卽對山]”라 하였다. 대산이 入直할 때 찾아가 詩酒를 즐기고 書屋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⁶⁰⁾

185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신의 노쇠함을 한탄하기도 하며 서울 남쪽 교외의 靑坡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보냈다. 청파로 옮기게 된 시기는 1857년이다. 그는 「贈崔先達淳敬環鄉」并序에서 “둘째가 한열의 증세가 있는데 해가 넘도록 차도가 없었다. 때문에 작년 가을 청파로 집을 옮겼는데 듣기로 전주 崔君 子浩가 가까운 곳에 寓居하는데 의약에 밝아 오기를 청했다...”라 하였다. 이어서 그는 시에서 “靑坡로 집 옮긴 것 우연이 아니구나/ 내 그대와 기이한 인연 맺었네”라 하였다. 그가 조제한 약은 매우 효과가 있어서 次兒(둘째 아들인 姜鴻秀를 이른다)는 꽤 유효했는데, 이 때문에 대산은 崔達淳과 인연을 맺으러 靑坡로 집을 옮기게 되었다 말한 것이다.

57) 동변 이만용의 시집인 『雪樓詩鈔』에는 박승휘, 임백연, 강진 등 시사 동인들이 모여 수창한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58) 姜潛, 『對山集』 乾, 卷2, 「輓豐恩府院君石厓趙忠敬公」 8首.

59) 조수삼, 『추재시초』, 「夢對山」, “日與君相見, 開窓卽對山, 吾衰無遠夢, 人邇有孱顏, 才藝圖書府, 遨遊宰相間. 孤舟乘夜雪, 倘不及門還”

60) 조수삼, 『추재시초』, 「和對山閣中酬唱韻及西城幽居韻」, 「過對山書屋」.

대산은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對山集』은 詩鈔이기에 그의 제문이나 행장이 실려 있지 않다. 박승휘는 그의 만년의 삶을 회고하며 “중년에 석애공과 운석공이 세상을 떠나자 대산 또한 낙망하고 실의에 빠져 南廓에 우거하며 문을 닫고 지내며 영락했다. 병 또한 생겨서 짧은 수명에 액운이 겹으니 이는 곧 문인이 세상을 잘못 만난 것이다”라 하였다. 여기에는 너무 빨리 생을 마친 뛰어난 문인에 대한 애도가 담겨 있다.

V. 남는 문제

시인으로서의 대산 강진을 학계에 알렸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이 있었다.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출발하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급급했다. 대부분의 서족 문인들과 중인층 지식인들은 제대로 된 이름표를 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學藝에 있어서 이들이 차지한 비중이 양적, 질적 면에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암 일파의 三檢書, 유명한 譯科 중인 몇 외에는 학계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에 관한 개별적 연구 혹은 유형화 한 群別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누적된다면 좀 더 자세한 조선의 문화지도가 생성되지 않을까 한다.

이번 연구는 강진의 문학작품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연구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필자 역시도 절감하는 바이다. 시의 미학적 분석, 예를 들어 대산의 詩風이나 정서가 표암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가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런 家學的 연원과는 별개로 ‘검서체’라 이를 만든 시들은 있는가, 있다면 당대의 검서관 출신 문인들과의 비교검토 속에서 검서체 전승양상을 규명하는 것도 연구의 한 방향이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한 향후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參考 文獻>

- 姜 潛, 『對山集』, 존경각 소장본.
——, 『對山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小紅葉樓未定草』, 수경실 소장본.
—— 輯, 『華人魚雁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晩用, 『雪樓詩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李止淵, 『希谷遺稿(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趙秀三, 『秋齋詩鈔』, 규장각 소장본.
『晉州姜氏竹窓公后雪峯白閣公派譜』, 晉州姜氏竹窓公后雪峯白閣公派譜編纂委員會.

박종훈, 「조정 박제가 시에 나타난 자부심과 내적 갈등 양상」, 『온지논총』 29집, 온지학회, 2008.
박현욱, 「朝鮮 正祖朝 檢書官의 역할」, 『서지학연구』 20집, 서지학회, 2000.
정은진, 「표암 강세황의 미의식과 시문창작」,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표암 강세황 한시의 형식과 표현」, 『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줄 고,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황인건, 「박제가 시에 나타난 검서관 체험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39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한국고전번역원 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B (<http://kyu.snu.ac.kr>)

Abstract

*Daesan(對山) Gang jin(姜潛)'s life and poetry - Based on the poetry of
Geomseogwan(檢書官) years / Kim Young Jook**

Daesan(對山) Gang jin(姜潛; 1807-1858) is 19th century's a former Geomseogwan(檢書官) and poet. His great-grandfather is outstanding artist Pyeom(豹菴) Gang seihwang(姜世晁; 1713-1791). Gang jin was an heir to his great-grandfather's artistry and remarkable literary attainments. Prominent men of the time speaks very highly of his work. About the poems, Gang jin easily ranks with the Three Geomseo(三檢書).

Nevertheless, poet Gang-jin and his poetry has not been enough studied it has recently gotten a look. This paper will be do the groundwork for full-fledged study of Gang-jin's poetry. For the right and well grounded approach to rearrange his life and career, I examined the several materials of 『naegack-ilryeok(內閣日曆)』 and 『silock(實錄)』, manuscript 『對山詩抄』 ect.

In order that appreciate poetry, I divided his lifetime depending on experience. Travel experience to beijing and Geomseogwan(檢書官) years had a big impact on his life. Especially, through Geomseogwan(檢書官) years's poetry, we can find some expressions that is about royal place life. On other way, he couldn't throw off this feeling of inertia.

This study is an interim report of this process. the ultimated goal is to investigate every aspect of his life and uncover his literature various ways on the basis of the study of his work and the outcome of the research.

【Key words】 Daesan(對山) Gang jin(姜潛), Geomseogwan(檢書官), travel experience to beijing, Pyeom(豹菴) Gang seihwang(姜世晁)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9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Researcher / wenxue@hanmail.net